

나해 사순 제3주일 기초자본

---

# 성전이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

## 율법의 핵심, 십계명

“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탈출 20,2) ”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시련을 겪을 때,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며 울부짖었기에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다.

**십계명:** 하느님의 구원과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 중,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

- 1) 하느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 2)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 3)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 5)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6) 살인해서는 안 된다.
- 7) 간음해서는 안 된다.
- 8)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 9)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10)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가톨릭교회는 탈출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묶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두 계명으로 구분하여 가르친다.

##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핵심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깨달아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요약한 십계명은

양심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라는 점에서

인간 사회의 근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성전 정화 사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곳은 성전 자체가 아닌 '성전 지대(=성전 뜰)'였다.

- 1)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만 출입 가능
- 2) 여인들의 뜰: 봉헌함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들 출입 가능
- 3) 이방인의 뜰: 성전 장사치들이 머물렀으며 이방인들도 출입 가능

이방인이 뜰에는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 화폐(세켈)로 환전하거나, 번제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이들로 번잡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다.

“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시편 69,10)

”

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한 폭력적 행위라기보다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행위였음을 의미한다.

##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 2,19)

”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활 시작에 배치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예수님이 장사꾼들에게서 하느님의 성전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죽음에서 해방, 부활시키시어  
그 성전 안에서 당신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다.

##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하느님의 힘

“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1코린 1,22-23)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은  
성전이신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  
곧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1코린 1,23-24)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다.